



구세주강성일천팔백구십오년

묘추문답

대조선기국오백사년을미



31008  
No 7975

묘축문답상권

묘축은 우리나라 말 노닐으면 동남묘슈복  
이와 신당직이와 성황당직이 못할기시니  
에 수교전도하는 사람과 문답할말이라  
에 수교전도하는 사람이 신당압흐로지나  
더니 할로인이 왼손에 지팡이를 쥐고 오른손  
으로 슈염을 든지며 홀노 신당압희안저거늘  
전도인이 갖가이 가서 인스하고 곁으터하자  
씨복을 밧아서 편안하셔 오닛가 그로인이 곁  
으터나는 홀아비로 조식도 업시고 성하는 사  
름이 무슴복을 밧는 다하는 노전도인이 곁으

터하자 씨가지팡이를 잡고 놀며 구경하셔는  
모양을 보건티 덩녕청한 할기이시여늘엇지  
고성할다하시느뇨로인이 곁으터나는 청한  
할사람이 아니라 이곳당직이 노릇하는 사람  
이로라 전도인이 곁으터그러하면 하자 씨  
씨이신당당직이시면 응당복을 만히 밧아계  
시리이다 속담에닐으터스환가에 갖가오면  
구실을 엿어하고 부엌에 갖가오면 밥을 엿어  
먹는다하오니 하자 씨는 흥상보살을 피시고  
잇스온죽엇지도로려복이업다하시느릿가  
당직이 곁으터나는 세상 사람을 티신하야보

삼을 섬기는 고로 공덕은 다 세상이 됨의 계로  
가고 나는 상 관업 노라 전도인이 곧으 타듯 스  
오니 보라 흠은 뉘다 흠이 요 살이라 흠은 제 중  
한 다 하는 말이 라 한 오니 한 물며 당신은 요 석  
으로 정성을 드리시 매 엿지 공덕이 상 관업 다  
한 시는 요 당직이 곧으 티 내수 십년을 보살을  
섬기고 늙은 요 희 권과 초자 루를 프 라 한 로 두  
세 식 먹으나 녀 녀 지 못 한 세 가 만 한 하니 복이 무  
어 시 노 전 도 인 이 곧으 티 당 신 은 밤 낮 스 로 보  
살을 외 서 향 불 를 받 드 되 복 을 엿 지 못 한 거 든  
한 물며 세 상 사 례 이 야 보 살 의 덕 을 닦 을 쇼 나

두 사람이 이르듯 말할 저 음에 한 사람이 전 당  
에 드리 가 처 성 한 거 늘 신 당 직 이 쓰 라 드러 가  
는 지 라 전 도 인 이 또 한 흠 쇠 드러 가 니 처 성 한  
는 사람이 초 불 을 켜 고 향 을 살 으 며 술 과 실 과  
를 버려 늦 코 귀 신 의 계 빌 며 추 침 통 을 췌 여 보  
고 니 러 나 서 도 희 옷 과 돈 을 티 우 니 당 직 이 북  
을 치 며 종 을 을 니 고 처 성 한 는 사 례 이 또 한 티  
를 티 우 고 일 을 못 친 후 에 늙은 물 건 을 기 두 어  
가지 고 가 거 늘 전 도 인 이 당 직 이 드러 무 러 왈  
초 불 켜 고 분 향 흠 은 무 슌 뜻 이 노 한 니 당 직 이  
답 왈 이 는 정 성 드 리 는 무 슌 을 표 한 는 거 시 니

라 곧 으티 마른 나무 등결에 정성을 드리면 무  
삼유의 흠이 헛스리요 당직이 곧 으티 나무로  
삭인 화상을 위하는 거지 아니라이 화상에 부  
치인 신령을 위하는 거지 아니이 신령을 섬기는  
사람은 도으심을 밋느니라 전도인이 곧 으티  
과연 신령이 화상에 주접하여 헛느뇨 당직이  
알그려하니라 곧 으티 만일 신령이 이 화상에  
주접하여 헛스면 헛지하여 쥐가 구멍을 내고  
좁이 먹으되 스스로 능히 보전치 못하느뇨 보  
살이 조그 몸을 보전치 못하거든 흠물며 만민  
을 헛지보전하리요 사라 헛는 몸으로 썩어 업

서 질흠과 나무를 위하야 절하니 도모허거북  
과 구렁이의게 절하는 것보다 더욱 미혹하도  
다 초불켜고 분향하는 거슨 고사하고 솔파고  
기를 버려 노음은 무삼 뜻이뇨 당직이 곧 으티  
이거 솔드림은 보살이 흠향하라 흠이니라 전  
도인이 왈 내보매 제스훈물건이다 그덕로 헛  
거늘 헛지보살이 흠향한다하느뇨 곧 으티 보  
살이 제물을 잡수심이 아니라 다만 내음식을  
흠향하시느니라 전도인이 왈 그런즉 제스후  
에 제스훈물건이 내음식이 반드시 업솔거시  
여늘 제스지넌솔이 풀과 쟁치심심하고 고기

가나 무지적 위고치된 단말을 듯지 못호엿노  
라 비록 물건이 차고 더운 거슨 다르되 맛과 내  
음서는 일반인 죽엇지 보살이 품향한 다닐으  
리요 때더하는 남외쳐사름이 먹고살거술주  
섯거 불사름은 구제치아니 호고 우상의게 드  
리니 진실노 미혹호고 또 환문을 더지논 거슨  
무슴 뜻이요 고평호티 보살이 길한 것파 흥한 것  
술마르쳐 주실가 함이니라 전도인이 고평호티  
마르쳐야 하니 마르침을 엿저 짐작호는요 당  
직이 고평호티 돈을 런호여 더지매 세빈업혀 제  
면길한 거시오 후젓쳐지고 후업혀지면 흥한

거시니라 고평호티 그길한 것파 흥한 거시파 업  
용힘호는요 당직이 왈그러호니라 전도인이  
왈허다한 사름이 장스호라호면 반드시 문져  
보살에게 무러보아세 빈길한 패를 엿은 사름  
이 적지아니호련마는 엿지호여 길한 거시도  
로려 흥호게 되며야 모령힘도 업는요 당직이  
티답지안타라 전도인이 다시 무르티 चु침을  
엿는 거슨 무슴 뜻이요 티답호되 보살이 화와  
복을 미리마르쳐실가 호야 별미니라 전도인  
이 고평호티 보살이 입은 잇스되 말을 못호거슨  
엇지 화와 복을마르쳐리요 당직이 고평호티 보

살이 비록 말은 못하나 그 속 뜻은 추첨티에 드  
릿스니 텨는 말을 쓰세히 푸러 보면 장리화  
되고 복됨을 아느니라 곧으티 침혀로 써엇지  
텨는 말을 푸느노 당직이 곧으티 가령 정월  
에 환히 신수를 보아 샹패를 엮으면 을히 에는  
크게 길하고 중패를 엮으면 또 환해 될 것도 업  
고 엮을 것도 업고 하패를 엮으면 흉한 거슨 크  
고 길한 거슨 적으니라 전도인이 곧으티 효험  
이 잇는 노 곧으티 효험이 덩녕 잇는니라 전도  
인이 곧으티 령험이 비는티로 잇서야 할 거시  
여늘 내보매 샹패를 엮고 저하나 도로혀 하패

를 엮고 하패를 엮어도 또 환길한 일도 잇고 후  
맛는 것도 불파우연이 함함이니 엮지 텨 돈과  
텨 동을 령험하다 하리요 당직이 머리를 흔들  
며 텨 답지안는 지라 전도인이 왈 도희 돈과 도  
희 옷살살음은 무슨 뜻이요 곧으티 도희 돈은  
쓰쇼셔 함이요 도희 옷은 남으시라 함이니라  
전도인이 왈 보살이 밧는 노 밧으저는니라 전  
도인이 곧으티 보살이 사람의 모든 도희 옷살  
엇어 남고 도희 돈을 엮어 써서 사람이 주기를  
기드릴진티 엮지 사람의게 복을 주는 슈단이  
잇스리요 또 환돈과 옷살살어셔 드리되 보살

이 밝는 거슨 보지 못하겠고 다만 도회지 만능  
아릿스니 도회지가 엇지 금은과의 복이 변하  
여 되리요 샹고 하야 볼진티 도회는 진나라 한  
나라 세브러 비로 소문 든 지시 요도회 옷은 당  
나라 세브러 시작 하야 삼티 이전과 진나라 한  
나라 전에 는 도회 돈과 도회 옷시 업섯스니 그  
세에는 보살이 어티셔 금은과의 복을 엇엇시  
며 또 할 보살이 도회 돈과 도회 옷불 탄적로써  
금은과의 복을 변하 여 쓰는 령험이 잇시면 홀  
노즈기가 아모 볼건도 업시 금은과의 복을 지  
여 쓰지 못하리요 또 할 문노니 인간의 쓰는 금

은과의 복이 보살의 힘을 넘지 못하 고 도로 허  
보살이 사람의 문든 금은과의 복을 받아 쓰니  
일노 보면 보살의 슈단이 사람 만도로 허 못하  
도 다 옷과 돈을 티우는 거시 다만 인간지물만  
허비 흠이니 엇지 그 만히 허비 하는 지물 노써  
가난한 사람을 구제치 안는 노 거시 그 장유  
의 할 리니 생각 하 여 보 쇼셔 당직이 좀 좀 하 고  
티 답지 하니 하 더 라 전도 인이 알 풍을 울 니 고  
복을 침은 무 슘 뜻이 노 클 으 티 거 시 두 가 지  
뜻이 잇스니 할 가 지는 쇼 석 세 를 당 하 야 보 살  
의 위 임 을 쓸 처 는 거 시 요 할 가 지 는 도 회 돈 과

웃살불살을세에보살쇠아읍시라고고고는  
기시니라전도인이알복과종소리틀내여보  
살의위임을떨쳐야바야흐로밖으실줄을알  
냥이면그소리나기전에는보살이사람의것  
다가밧치는물건을온전이하지못하거늘엇  
지사름의장리화되고복됨을미리알니요뵈  
고령환사름의마음으로써령힘업는보살을  
섬기니엇지이긋치미혹하노당직이그러히  
덕이더라전도인이다사플어알티를티움은  
무슴뜻이노글은티이는것분소리로선령의  
은혜를감사함이니라전도인이글은티사름

히모든은혜가다하노님이주신거시여늘하  
노님의일호도감사타아니하고도로허하  
노님이주신물건을가다말은나무등걸노  
문든보살의게밧치고감사하다하니이늘하  
노님의크게노허하시늘별을면치못할지라  
가령조식이착하지못하야부모의기르신은  
례를곰압게덕이지아니하고도로허부모의  
세간을가다가부모의원슈를주면부모되는  
이가분하고노하여찌리지아니하리오부모  
의은혜를비반하야도죄가잇슬줄을어린아  
희라도알거든하노님기억할죄가잇슬줄을

엇지 모르느뇨 하는 넘의 죄를 엇으면 빌 곳이  
업느니라 모리신령의 기도하고 석가여리의  
게 불공하야 도하는 넘의 형벌을 면치 못하느  
니라 당직이 끝으티 속담에 빌으티 사람은 신  
령의 음덕을 버리고 초목은 양춘의 덕을 버  
린다 하니 우리가 맛당이 보살파신령을 섬겨  
은혜와 덕을 버릴거시여늘 그티는 보살을  
업수히 녀이여 버리라 하니 엇지 억지말이하  
니 리요 천도인이 끝으티 나외말이 억지말이  
아니라 당신 소견이 북지 못하여 보살이 도하  
줄년지 아니 할년지 모르고 요석으로 섬기며  
묘축문답

계말

또한 영원할년 빌을 면치 못할터인고로 내가  
전위하야 화셔하는 넘의 참도를 전하야 세상  
사람으로 하여 품모든 거짓도를 버리고 바른  
도에 도라오게 함이니 하는 넘을 섬기면 디옥  
을 버셔나고련 당에 올라가리니 가령 사람이  
바른길을 내여 놓코 벗두른길노 드러가매 누  
가 바른길노 인도하지 아니 하면 종리 바른길  
을 좇지 못하리니 우리가 이도를 전파함은 길  
일흔 사람을 길인도함과 같지라 밋고 하니  
밋기는 사람의 게잇는 거시이니와 당신을 강  
권하여 참도로 인도함은 나의 당연할년 직분이

로라 당직이 성내 여궤으티이 곳헤서 신명을  
드러이지 말고 이셔가 소점도인이 궤으티하  
자씨이긋치 조급히 말을 말고 나의 조세한  
말음을 드러 보시오세 상사름의 섬기는 보살  
이라 하는 거슨 모도 다 거궤거시라 네 전신 룡  
황 데로 브러 요순 우탕 사지니 르도록 다 오레  
살고 빅성이 다 데 평항 엿스니 그세에 는 중국  
에 우상이 업더니 한나라 상나라에 니르러 인  
심이 점점 변항야 춤도를 비반항고 의도 툴항  
상항여 귀신의 계복을 구항더니 상나라 무을  
황 데가 처음으로 우상을 문드러 신령이라 항

엿더니 후에 들에 나하갓다가 벼락을 맞나 죽  
엇스니 이는 하늘의 심이요 한나라 명  
항사 후세 사름을 정계항심이요 한나라 명  
세에 불법이 비로 소중국에 통항야 우상 위  
는 풍속이 점점 성한지라 중국에 해됨이 적지  
아니 항니 때더 보살은 중국에 서난거시 아니  
라 서역 텨 출국으로 브러나 아온거시 여늘  
국사름이 밋어 섬기고 풍속이 물드러하느  
이 텨디 간 큰 주지 신졸을 모르고 우상을 공  
정 할세에 이마를 쓰며 손가락을 티우고 무  
론로 쇼항고 조석으로 지산을 허비항야 당연이 할

만환성에를내여브리니그폐가엇지크지하  
니하리요한나라로브리지금사지절과진당  
이업는곳이업고군왕이하로빅성사지힘을  
다하야밧드니만일보살이진실노직앙을업  
시하고복을줄더이면보살섬기는사름들은  
다대평을누리고요순셰보담더옥오래살고  
편안할거시여늘엇지하야진나라한나라이  
후로는란리와망흥이서로닛고나라복이길  
지못하며세상이쇠하야사름의슈가더옥부  
족하고도적파적변이쉬지하니하니이갓환  
관란이엇지보살섬긴현교가아니리요세상

사름이보살섬김은복을비는거시여불도로  
허앙과물엿은죽보살섬기는거시슈고만호  
고공효업숨을가히알니라이리므로나는보  
살이당녕곧외도로아노라브라건대아까지  
꺼셔종용이성각하야나의말을빔언이듯지  
마르시민이우도곧가하노이다당적이곧  
티우리가보살과진령을섬기때그도아주심  
을넘지안는이가업거늘그티는말하되넛적  
에는보살이업다하니넛적에는누가도아주  
섯노노전도인이곧으티련하만민이일절하  
느님의기르시느은폐를넘고공하고망하며

성호교외 흠과가난호고부호며 귀호고천환  
거시다하느님이 주신거시니 보살과 무습상  
관이잇스리요 초연사름의 섬거는 보살은다  
넋적사름으로이왕죽은거술사름들이나 무  
와돌노형상을삭여 늦코망녕되이 놓흔일흠  
을지어신령이라부르느니그미혹흠과죄악  
이측량할수가업느니라 당직이알보살은봉  
호심을빚은고로 비록우상이라호나그실상  
인즉신의게결호는거시니라 전도인이알보  
살이귀게봉흠을빚앗느뇨 당직이결은티옥  
광의척봉호심을빚은이도잇고 현조의척봉

흠을빚은이도잇느니라 전도인이알옥황은  
송나라휘종황제가봉환거시니조기도사름  
의봉흠을빚앗거든엇지다른신을봉호여주  
리요이又판말은밋을수가업고 황제가죽은  
사름을봉호여신을삼엇다 할진대그권능은  
누가준거시뇨 당직이알현조의권이스히를  
진당호시메위임과권능으로엇지못할일이  
잇스리요 전도인이알 황제의권이능히신하  
로호여곰타국에봉호여벼슬을식이지못호  
거든엇지죽은사름을하늘에봉호여신이되  
게호리요 밋조1알현조1능히사름을하늘

에 천거 하되 하는 님으로 하여 품련 하를 주시  
게 할 수는 업다 하섯스니 임의 하는 님으로 하  
여 품련 하를 주시 게 못 할 전대 하물며 하물에  
봉하여 신이 되게 할 쇼냐 황대는 사름이 매다  
스리는 거시 다만 사름 썩이라 사름과 귀신이  
유명이 다르고 又 혼세라도 권능치 못하거든  
하물며 수백년 선후가 又 지 아니 하니 리치가  
올치 아니 하요 만일 심전에는 사름이 되고 소  
후에는 신이 되엿다 하량이면 그 사름 업술세  
에는 모든 백성이 무삼 신을 위하엿는 노당직  
이 고평오티 우리 섬기는 신명은 다 허한 하다 할

전대 누구를 섬기 여야 요 조 리 요 전 도 인 이 알  
하물에 두리가 업고 백성은 두인군이 업다 하  
니 려디 간에 다만 하는 님 썩이니라 당직이 알  
련디 가한 량 업시 곱고 크니 하는 님이 엿지 혼  
자다 소리 리 요 비 유 전대 나라 님금이 홀노 나  
라를 다 소리 기어려운 고로 백관을 봉하여 흙  
쇠나라를 다 소리 게 하는 님 생각 건대 하는 님  
도 일 백귀신을 봉하여 서로 돕게 하시리라 전  
도 인이 알 하는 님이 능치 못하심 이 업스샤 려  
디를 창조 하섯신 즉 능히 려디를 다스릴 거시  
요 만민을 창조 하섯신 즉 능히 만민을 다스릴

지니 만일 하느님 석셔 죽은 사람의 도움을 남  
을 진티 그 사람을 죽지 아니 하엿실 세에 는 누  
가 하는 남을 도앗는 노 당직이 왈 그 티 말에 상  
데 라 하는 남 이라 하는 이 가 보살 이 시 나 전 도  
인이 왈 아니 라 하는 남 은 띠 디 간 큰 주 지 시 요  
심 스 와 화 복 의 권 능 을 잡 으 샤 지 극 히 높 하 비  
홀 이 가 업 고 흥 나 이 시 요 들 도 아 니 게 시 니 라  
직 당 이 왈 옥 황 이 하 는 남 이 아 니 시 나 곧 으 티  
옥 황 은 성 이 장 이 요 정 월 초 구 일 에 탄 심 흥 엿  
다 흥 니 탄 일 이 잇 스 면 당 녕 혼 사 례 이 여 늘 엿 지  
시 요 부 모 가 잇 스 면 당 녕 혼 사 례 이 여 늘 엿 지

상 데 라 망 녕 되 이 날 쿨 는 노 당 직 이 왈 옥 황 이  
상 데 가 아 니 시 면 하 늘 이 상 데 시 나 곧 으 티 아  
니 라 상 데 는 하 늘 에 서 더 옥 높 호 시 니 라  
당 직 이 왈 높 고 높 호 샤 오 직 하 늘 이 크 다 흥 엿  
스 니 상 데 석 셔 더 높 홀 수 가 잇 스 리 요 전 도 인  
이 왈 하 늘 은 상 데 계 신 처 소 | 라 비 유 로 문 노  
니 띠 즈 가 높 호 나 띠 즈 의 궁 던 이 높 호 나 당 직  
이 왈 띠 즈 가 궁 던 주 인 이 니 띠 즈 가 높 호 니 라  
전 도 인 이 왈 임 의 띠 즈 가 궁 던 주 인 인 줄 은 알  
고 홀 노 상 데 가 하 늘 주 인 이 신 줄 은 모 로 는 노  
당 직 이 곧 으 티 상 데 석 셔 탄 일 이 게 시 나 곧 으

덕상대는절노계신지라련디기벽이전브러  
게시옵서시작도업고종말도업스신고로란  
일과그일이업느니일노보면상대씩셔만티  
만민외큰쥬지시매만민이맛당히흠씩셔  
야올켜놀아자씨셔는엇지올치아니할도  
를뵈드러형호고춤도는모르느노당직이할  
늦고천한우리곳한적은빅성이엇지능히상  
대를섬기리요전도인이알상대는만민의하  
늘아버지라련조로셔인사지다상대의덕회  
올뵈은즉사름마다그직분올다호야섬길지  
라엇지높고느진기술분변호리요비록악한  
고추문간

집소

사름이라도전에죄악을누엇쳐곳치면가히  
상대를섬길지니라당직이알련조가올노련  
더에제스를드리느니만일빅성이상대를섬  
기면춤람호지아니라전도인이알이느사름  
의뜻스로높고느짐을분별흠이요상대의근  
본뜻지아니라비유컨대한사름이아들형데  
를두엇시매큰아들이얼오뒤배가맛아들이  
니량친을혼자섬기겟다호고들제아들이호  
한부모를섬기라고호매장형이섬기지못호  
게호면그부모맛아들뜻슬깃기호며호한들  
제아들이장형의뜻슬좃차량친을섬기지아

니하라 당직이 곧은 터 그러치 아니하리라 전  
도인이 왈 그 둘직아 들이 장형의 말을 좃칠 리  
치가 업고 그 부모가 반드시 맛아 들의 효만 받  
지 아니리니 련 조와셔 인이 비록 귀하고 천홍  
은 다르나 상대 섬기는 본분은 일반이니라 당  
직이 왈 우리 도상대를 섬기는 일이 잇스니 하  
늘을 티하야 제스하느거시 또 혼상대를 섬기  
는 거시니라 전도인이 왈 현디에 제스하느거  
스상대 썩셔 문드신 물건 의게 제스함이요 상  
대 썩지 내는 거시 아니라 비유컨대 아버가 집  
을 지여 조식을 주엇더니 조식이 부모는 아니

섬기고 부모지은 집을 섬기는 거시 이에 쳐다  
뵈미 잇스리요 당직이 왈 상대를 섬기라 하면  
스당직을 지어야 하겠느냐 전도인이 왈 그러  
치 아니하니라 성경에 날너스되 상대 썩쳐는  
사람의 손으로 문드집에 거하시지 안는 다하  
엿느니라

당직이 왈 그러하면 상대의 화상을 모시느냐  
전도인이 왈 상대는 곳신이시니 무형무상하  
자 사람이 능히 뵈을 수가 업는고로 형상을 방  
불히 문드지 못하느니라 성경에 날너스되 상  
대는 세상 사람이 금과 은이 다 돌고 문드섯가

又치아지마라 하고 또 신의 형상을 위하느니라  
손상대의 금홍십을 범함이라 하였느니라  
당직이 왕상대를 공정하는 곳이 텅허쳐소가  
잇느냐 전도인이 왕상대씩서 우리와 상거가  
멀지아니 하샤하지 못하십이 업스신 고로 길  
에 서나 집에 서나 산에 서나 물에 서나 맛당히  
공정할 거시오 상대씩서 또 혼우리기도를 굽  
어 들으샤 허락하시느니라 당직이 왕상대를  
섬길새에 세가지 희성과 실과와 술을 쓰느냐  
전도인이 왕상대씩서 무슴부족할 물건이 잇  
스리요 세상에 금슈와 초목과 허다할 물건이  
잇

로 만민을 주시니 상대 하고 신부자가 업거늘  
무슴물건으로 드리리요 성경에 닐넛스되 상  
대는 신이시니 숭봉하는 사람이 정성과 온전  
할 마음과 뜻으로 섬길뿐이라 하였느니라  
당직이 왕제스 할 물건이 업스면 엇지 공정하  
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히리요 전도인이 왕성  
정에 닐너스되 내의 몸을 산제물과 못치드리  
라 하였스니 다만 몸과 마음으로 하는 님마르  
치신도를 조차 착한도를 행하면 제물노 공정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하는 이보다나 하리  
라 당직이 왕상대를 섬기라 하면 달마다 초하

로 보름으로 텅흐는 나전도인이 왈 성서에 날  
너스더 반드시 흥상기도 하고 계어르게 말나  
흐섯스니 때더 상대 쇠셔어질고 사랑호심으  
로우리 령혼과 육신을 기르샤 조곰도 간단이  
업스신즉 우리가 또 흥상대 놓혀 맞들기물초  
호로와 보름에 만홀췌하니라 아모세라도 흥  
상기도 할지니라 당직이 왈 기도 할세에 또 혼  
덕담으로 호는 나전도인이 왈 성정에 호섯스  
디사름은외모로 취하고 상대 쇠셔는 믿음으  
로 덕호신다 호섯스니 상대 쇠기도 호랑이면  
글과 말을 치레 할거지 아니라 전심과 지성으  
요

로 호며 중인부인호지 말고 빌기를 조심호야  
조식이 부모 쇠비드시 할지니라 아자씨는 전  
죽을치 못호도를 버리고 조곰도 에도라와하늘  
나라 영원호복을 누리면엇지다 행치아니리  
요 당직이 왈 내가 만일 젊엇실세에 이런 말을  
들엇더면 호호섯스런마는 지금은 나히 늙엇  
시니 엇지 호호리요 전도인이 왈 아직 도 늦지  
안코 또 호심도 에엇지 조만을 해아리리요 공  
조말슴에 도아침에 드르면 저녁에 죽어  
도 올타 호섯스니 맛당이 예수복음을 밋어  
행호라 만일이 제 밋어 행치아니호면 후에

웃쳐도 할수업소리니 생각하라 전도인이 날  
이 점으는 거슬 보고 당직이로더 브러 작별하  
고 가니라

묘축문답권지상종

묘축문답

십팔

묘축문답하전

잇흔날 전도인이 다시 신앙에 드러가니 당직  
이 영접하여 인스름 못춘후에 세상니야기를  
하더니 전도인이 왈 우리가 어찌 세상 사람의  
보살 섬기는 거시 좃도 가아님을 말하엿더니  
싱각하야 보견티 좃도 1니 잇가 당직이 곧  
티그티말이 보살이거 좃거시라 곱을내가 아  
니 밋는 거시하나라다 만흔가지의 심이 잇스  
니 사람의 전하는 말이 신안고 울적 만이라하  
는 씨에 현후마노라 가 잇서 미우령험하야 미  
양기 록 곱을나라내며 빅성을 구원하느니라